

2019년 국내 상반기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 거래, 투자 및 기술수출 결산

황주리 팀장 한국바이오협회 홍보팀
김지현 책임연구원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2019년 상반기는 바이오기업들 간의 다양한 거래 형태와 많은 수만큼이나 바이오분야의 VC들도 발 빠르게 움직인 해로 보여 진다. 2018년을 ‘벤처투자의 해’라고 부른다면 2019년 상반기는 이름하야 ‘개방형 혁신’ (Open Innovation)이라는 전통적 기업거래 방식을 탈피한 ‘기업간 거래 혁신의 해’로 볼 수 있겠다. 거물급 기술수출 (L/O) 또는 대형제약사 (Big Pharmaceuticals)가 외주혁신 (Innovation Outsourcing), 또는 반대형태인 내부연구개발부 (In-house R&D) 활성화 및 대형합병 (mega-merger)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 간 거래형태들이 나왔고 이는 전체 바이오의료 투자규모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유독 바이오·의료분야의 흑한기인 것 마냥 연이어 부정적인 이슈들이 연이어 터졌다. 올 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부정이슈로 바이오기업의 ‘가치평가’ (Valuation) 문제를 화두에 오리기 시작하면서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쇼크로 인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 부실검증, 안전관리 및 검증 미흡’에 대한 사안이 이슈화되었다.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권리 반환에 이어 얼마 후 신라젠 펙사백, 헬릭스미스의 엔젠시스와 같은 신약 미국 3상 임상시험 실패로 인한 실패원인 의혹들과 관련한 바이오기업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문제’ 등 ‘약재’가 계속 되었다는 상반기 여론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 공동개발, 기술수출, 벤처투자 모두 ‘약재’라는 위기 속에서도 크게 위축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속에서 올 해 상반기 바이오의료시장이 성숙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올해 상반기 통계가 반증한다.

본고에서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2019년 상반기에 일어난 여러 형태의 오픈이노베이션, M&A, 벤처투자 주요결산을 통해 하반기 바이오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픈이노베이션: 기술이전, 기술수출 (L/O)

티움바이오는 1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사인 키에지 (Chiesi Famaceutici) 그룹에 주요 폐질환 치료 신약 후보물질(NCE401)을 7400만 달러 규모의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키에지 그룹은 호흡기 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글로벌 임상개발 및 상업화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티움바이오에 계약금 100만 달러 지급, 해당 신약후보물질이 임상 등 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Milestone) 7300만 달러의 단계별 계약금액과 상업화 이후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계약했다. (이탈리아 키에지 그룹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같은 달에 **유한양행**은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에 7억 8,500만달러 (약 8,823억원)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술수출 계약은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치료를 위한 두 가지 약물표적에 작용하는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것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는 계약금 (Upfront Fee) 1,500만달러(약 169억원)를 받고, 개발허가 및 매출에 따른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7억 7,000만 달러 (약 8,655억원)를 받고 이후 순 매출액에 따라 경상기술료 (Loyalty)를 수령할 예정이다. 이 계약으로 전임상단계 (동물실험)은 공동 실행하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이후의 글로벌 임상을 담당하게 되었다.

SK바이오팜은 지난 2월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인 '세노바메이트'를 유럽에서 상업화하기 위해 스위스 아벨 테라퓨틱스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선계약금 1억달러를 포함해 임상, 시판허가 등 목표 달성에 따른 마일스톤을 합쳐 총 5억3000만달러(약 6184억원)에 기술계약을 했다.

이어 **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는 다케다 제약의 미국 자회사인 밀레니엄 파마슈티컬에 ADC 플랫폼 기술을 이전했다. 이는 선급금 포함하여 마일스톤 계약 규모가 총 4,500억원이다.

올릭스가 RNAi 기반 황반변성 신약후보물질 'OLX301A'를 프랑스 제약기업에 기술이전했다. 전임상 단계 신약후보물질의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 판권을 6,300만유로 (800억)원에 계약했다. 전체 계약금 중 반환조건 없는 선급금으로 200만유로 (약 26억원)를, 향후 임상 진행에 따라 단계별 마일스톤 총 4,350만유로(557억원)를 받았다.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해당 후보물질이 제품 상용화 성공시 로열티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별도 지급 받게 되며 추가적인 옵션 계약 조건에 따라 신규 안구 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해 1750만유로 (약224억원)을 받을 수 있다. (올릭스 홈페이지 참조)

GC녹십자는 일본 클리니젠 뇌실투여 방식의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ICV에 대한 기술수출계약을 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일본 클리니젠은 일본 내 ‘헌터라제 ICV’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GC녹십자는 상업화 이후 판매 수익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되며 계약금과 마일스톤은 양사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했다.

알테오젠은 5월, 글로벌 제약사와 인간 히알루로니다아제 원천 기술 (ALT-B4)에 대한 라이선스 옵션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해당 제약사명과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미공개형태다. 다만, 글로벌 10대 제약사 중 한 곳이며 계약금 100만달러 (약 12억원), 옵션 기간 6개월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알테오젠은 히알루로니다아제의 시제품을 해당 파트너제약사에 시제품을 제공, 제약사는 실사를 통해 기술을 확인 후 합의 조건으로 계약체결하게 된다. 해당 기술수출은 비독점적 계약이라 향후 다른 품목에 적용을 원하는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추가적인 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뮤니스 바이오는 ‘NK세포 활용 면역세포치료제’를 베트남 ‘DNA국제종합병원 JSC’사와 협약을 맺고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핵심 기술을 수출했다.

유한양행은 상반기 끝자락에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에 8억 7000만달러 (1조 52억원) 규모의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치료제 후보물질 (YH25724)기술 이전체결을 했다. 이중 반환의 무가 없는 계약금은 4,000만 달러로, 1,000만달러는 GLP-TOX (비임상 독성실험) 이후 수령 예정이다. 개발 허가 및 매출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은 총 8억 3,000만 달러로, 계약지역은 한국을 제외한 전국가로 계약일로부터 국가별 특허권에 대한 권리가 만료되는 시점 또는 국가별 최초판매일로부터 10년 또는 국가별 허가기관으로부터 부여된 독점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까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 간질성 폐질환 치료목적의 오토텍신 저해제 ‘BBT-877’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계약금 및 단기 단계별 기술료로 4,500만 유로 (약 600억원)을 수령한다. 이와 별도로 임상개발, 허가 및 판매에 따른 기술료로 약 11억 유로 (약 1조 4600억원)을 받게 된다.

* 상반기의 첫 자락과 끝자락에 기술수출에 성공한 티움바이오와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기전은 다르지만 특발성 폐섬유증(IPF)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회사로 올해 두 개 사 모두 IPO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릿지바이오는 최근 예심 청구 당시 4,000억원이상, 티움바이오는 올해 초 프리IPO과정에서 약 3,200억원의 가치가 책정되었다.

오픈이노베이션: 위탁개발 (CDO)

위탁개발(CDO)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면역항암치료제 연구개발 바이오회사인 유틸렉스와 면역항암치료제에 대한 위탁개발을 3월에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틸렉스가 개발 중인 최대 15개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에 대해 세포주 개발부터 임상 1물질 생산까지의 위탁개발 서비스를 앞으로 5년간 제공하게 되며 이로 인해 유틸렉스는 기술력을 시장화 할 수 있게 되어 이상적인 협력사례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틸렉스 외에도 국내외 5개 바이오벤처들과의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신약공동개발 형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서는 신규프로젝트를 통해 이후 수탁생산 (CMO)성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점도 '공동개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보인다. 작년에는 지아이이노베이션과 면역항암제에 대한 위탁개발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양사가 합의한 5개의 멀티 프로젝트 중 첫 번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포주 개발에서부터 임상1상물질 생산까지의 CDO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되었다.

바이오벤처기업들은 신약 개발 단계에 있어 고품질 임상시험 시료 생산문제가 가장 큰 문턱이었던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벤처기업과의 협력은 바이오기업들 간의 상생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월 미국 사이토다인과 355억 규모의 에이즈 치료제 바이오의약품 (레론티맵)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5건의 수탁개발(CDO) 수주계약체결 이후 2019년 유틸렉스, 지아이이노베이션, 에이비온, 이문온시아 등 국내 바이오벤처와의 CDO 체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오픈이노베이션: 공동개발/합작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현지법인 설립에 나서고 있는 배경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한몫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해외에 법인을 세우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중소 제약기업들의 해외 인허가와 기술이전 등을 위한 글로벌 컨설팅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보도자료)

제약사와 바이오벤처 간 협업 사례가 돋보인다. 보령제약은 라파스와 치매 치료제 '도네페질 마이크로논들 경피제제'를 패치 형태로 공동 개발 중이며, 일동제약은 벤처기업 올릭스와 함께 새로운 황반변성 치료제를 공동개발 하고 있다.

경쟁사라고 생각하는 제약간의 R&D비용 절약을 위한 협력사례도 볼 수 있다. 유한양행과 GC 녹십자는 효소 결핍으로 생기는 희귀 유전성 질환인 고세병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협업 추세도 강화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글라이식스와 1월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희귀신경계질환 치료제를 공동개발하고 있다. 동아에스티와 아스트라제네카가 면역항암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고, 한미약품과 스펙트럼은 지속형 호중구 감소증 신약 (롤론티스) 개발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국내 기업이 병원과 협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병원의 우수한 역량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 기술실용화, 활성화 및 병원중심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업도 눈에 띈다. 올해 3월부터 보건의료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의료기관 -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에 10개기업이 동시에 활용 가능한 실험시설, 장비 등의 설비 및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개요 참고)

인수합병 (M&A)

2019년 상반기 글로벌 제약바이오사의 인수합병(M&A)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기업 간 거래 규모가 1분기 740억 달러 규모의 BMS (Bristol-Myers Squibb)-셀진(Celgene)인수합병, 2분기 630억달러 규모의 애브비(Abbvie)-엘러간(Allergan)인수합병과 같은 대형합병(mega-merger)의 영향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전체 거래 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분기에는 M&A활동이 부진해지며 거래량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바이오기업들 또한 1, 2분기 모두 여타 기업 간 거래형태에 비해 올 상반기에는 인수합병 건 수는 많지 않았다. 올 해 초 1월에는 한독과 제넥신이 미국 바이오기업 '레졸루트'에 2천500만달러(약280억원)을 공동투자(인수) (M&A형)를 해 지분 54%를 확보, 최대주주에 올랐다.

제넥신, SCM 생명과학은 2월에 브라운필드투자 (Brown Field Investment) 형식으로 미국 아르고스 테라퓨틱스 세포치료제 생산시설 125억원에 인수했다. 새로 인수한 회사의 이름은 코이문(Coimmune)으로 정했으며 미국 내 독립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더럼에 위치한 아르고스는 2018년 초까지 나스닥에 상장됐던 개인맞춤형 항암치료제를 개발해온 회사로 약 2만제곱피트 규모의 cGMP 설비와 함께 임상 3상을 완료한 바 있다.

2019년 상반기 바이오와 M&A업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소식은 결국 합병이 무산된 **톨젠과 제넥신**의 합병이라고 할 수 있다. 제넥신이 톨젠 지분을 100% 흡수하는 방식으로 (흡수합병) ‘톨제넥신’이라는 이름하에 기대를 모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크게 밀들면서 주주들의 합병반대 탓에 무산되었다. 톨젠은 M&A를 다시 추진하거나 기업공개에 재도전하겠다고 알린 상태다.

에이티젠은 엔케이맥스 흡수합병을 6월에 진행하며 엔케이맥스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엔케이맥스 (구, 에이티젠)은 본격적으로 면역진단에서 치료까지 NK세포 연구개발 전문 기업으로 ‘슈퍼NK(SuperNK)’면역 세포치료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항암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암 대상의 미국 1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1-6월) 국내 IPO 상장사 취합 (출처: 한국거래소 공시)

올 해 초 원천기술인 생체접착융합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용 지혈제를 개발하고 있는 벤처기업인 이노테라피가 국내IPO (코스닥)에 성공한 첫 주자가 되었다. 공모물량으로는 총 60만주로 100%신주 발행으로 전체 80% (48만주)를 기관투자가 몫으로 배정했다. 공모희망가격은 2만200원~2만5200원으로 제시했다. 확정 공모가는 18,000원.

서울대 약대 벤처기업으로 항암면역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셀리드가 기술특례상장으로 올 2월에 코스닥에 상장했다. 지난해까지 적자가 이어졌지만 수요 예측을 거쳐 3,000억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받았다.

지노믹트리스는 3월에 코넥스에서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IPO에 성공했다. 체외진단 시장의 체외 암 조기진단(Early Detection)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액체생검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으로 DNA 메틸화 바이오마커 발굴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차세대 유니콘에 가장 가까운 평가다.

체외진단기업인 수젠텍 역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위치를 옮긴 기업으로 5월에 이전상장했

다. 하지만 공모실패를 하여 공모가 하단인 1만2000원에 상장했다.

압타바이오는 상반기 끝자락에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올해 췌장암 치료제의 비임상을 진행 하고 있으며 혈액암 치료제의 임상 1/2상도 시작할 계획인 기업이다. 공모가는 1주당 30,000 원으로 상장했다. 압타바이오는 작년 삼진제약에 황반변성 치료제 APX-1004F를 기술이전했 으며 2016년에는 미국의 호프바이오사이언스에 Apta-12(췌장암치료제)를 기술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지노믹트리와 수젠텍 모두 체외진단기기 기업으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하며 고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기기는 바이오헬스 대열에서도 신약처럼 성장가치 나 잠재력이 비교적 유한하기 때문에 제조업과 같은 비슷한 가치로 평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뻥한’ 시장으로 밸류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벤처투자

2019년 상반기 (1월~6월) 바이오기업 투자 유치 건수 5233억원

국내에서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바이오의료분야 투자액은 5,233억원 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전체 바이오·의료 분야 신규투자 8,417억원, 2017년 3,788억 원과 비교해 보면 역대 최고였던 작년 한해 투자액의 60.9%에 이르는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 해 상반기 전체벤처투자액이 1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의 약 27.5% 가 생명공학(바이오의료)분야라는 점도 괄목할 만한 점이다.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은 바이오의료 분야 뒤를 이어 24.6%를 차지한 것은 바이오산업이 정보통신, 제약, 의료기기, 식품, 연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융합산업’으로 몸집을 불린 것도 하나의 상승요 인으로 볼 수 있겠다.

1월부터6월까지 투자금액 기준 데일리파트너스 투자시장현황 발표자료집에 의하면 중기기 경비가 41.2%, 초기기업이 33%를 기록했으며 업체 수 기준으로는 초기기업이 45.6%로 가장 많았고 이하 중기기업 34.3%, 후기기업 20.1%순이었다.

하기에는 월별로 집계된 국내벤처캐피탈 바이오 투자 시장 현황을 리스트업 해놓았다.

기업명	투자액(억원)	투자기관	투자단계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	50	OCI	시리즈 A
엠비디	100	네오플럭스, 미래셋벤처투자, 지엔텍벤처투자, 이앤벤처파트너스, BSK인베스트먼트, 대덕벤처파트너스, 보광창업투자, 패스파인더에이치	시리즈 A
IMGT	97.7	한국투자파트너스 (30억), K2인베스트먼트 (30억), 기업은행 (10억), 산은캐피탈 (10억), 엔젤투자 (17.7억)	시리즈 B
큐로셀	150	인터베스트, 미래셋캐피탈,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스틱벤처스	시리즈 B
세레스에프엔디	15	2018 하나-마그나 스타트업펀드	시리즈 A
엑셀세라퓨틱스	46	한국투자파트너스·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엘앤에스벤처캐피탈·대덕벤처파트너스	시리즈 A
우진바이오	30	아주IB투자 (20억), 어니스트벤처스 (10억)	시리즈 A
딕스젠	40	HB인베스트먼트, 우리은행, 신한캐피탈,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시리즈 B
에이치엘비	200	Pacific Alliance Asia Opportunity Fund LP	코스닥
바이오리더스	100	요즈마 글로벌 메자닌펀드 2호	코스닥
메드팩토	30	비공개	비상장

기업명	투자액(억원)	투자기관	투자단계
JD바이오사이언스	41	미래셋캐피탈, 현대기술투자, BSK인베스트먼트, 오펜즈인베스트먼트	시리즈 A
안트로젠	200	이엠텍, 데일리파트너스	코스닥
메디포럼	190	신한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이윤은시아	435	파라투스에스피 사모투자합자회사	
팜토바이오메드	60	한국투자증권,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시리즈 B
메디맵바이오	30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BNH 인베스트먼트	시리즈 A
인핸드바이오	73	CKD창업투자, 한국벤처투자,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동유기술투자, 서울투자파트너스, 상호그린인베스트먼트 등	시리즈 A
이수앱지스	400	인터베스트홀딩스	코스닥
로킷헬스케어	110	KB인베스트먼트, 산업은행, 데일리파트너스	시리즈 B

기업명	투자액(억원)	투자기관	투자단계
디앤에이링크	70	에이원자산운용, 파인밸류자산운용, 밸류시스템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코스닥
디엑숨	60	SV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키움인베스트먼트, ID벤처스, 녹십자랩셀	시리즈 A
브릿지바이오	310	UTC인베스트먼트, 신한금융투자, KDB산업은행, 우노인베스트먼트, 대웅	시리즈 C
신라젠	1,100	키움증권, 키움자산운용, 키움아이온코스닥스케일업, 수성자산운용	코스닥
고바이오랩	40	CJ제일제당,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전략적투자
자백신연구소	120	스틱벤처스, 현대투자파트너스, LSK인베스트먼트, UQI파트너스, 메이플투자파트너스	
대화제약	200	라임자산운용	코스닥

기업명	투자액(억원)	투자기관	투자단계
엑소플플러스	27	포스코 기술투자, CKD벤처캐피탈, 데일리파트너스	Pre-시리즈A
싸이토닉스	20	데일리파트너스	시리즈 A
뉴라클제네릭스	159	이연제약 (2018년),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퀴드자산운용, 새한창업투자, 브라마인베스트먼트, 이연투자조합2호	시리즈 A
미토이문테라퓨틱스	120	KB인베스트먼트, BNH인베스트먼트, KDB산업은행, SL인베스트먼트	시리즈 A
메디컬아이피	56	스타셋인베스트먼트, SJ투자파트너스, 네오플렉스	시리즈 B
비씨켄	100	DS자산운용, 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KB증권 등	시리즈 B
바이젠셀	200	네오플렉스, 데일리파트너스,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등	시리즈 B
퓨저메디신	70	코오롱인베스트먼트-우신벤처투자NH투자증권 등	시리즈 B
디앤디파마텍	1,400	옥타브라이프사이언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LB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등	시리즈 B
류켄바이오	54	디에스자산운용, ㈜코메론	코넥스
연술바이오사이언스	110	엘론·위드윈 신기술투자조합, 수성자산운용주식회사, 예이스수성신기술투자조합	코넥스
노브메타파마	45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코넥스
이온메드	162	유티씨인베스트, 라구나인베스트, 우노인베스트, 티그리스인베스트	Pre-IPO
클리노믹스	225	제약회사, VC,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등	Pre-IPO
티올바이오	400	브레인자산운용-타임플리오-DS자산운용 등	Pre-IPO
제이엘케이인스펙션	200	KB인베스트먼트, KTB네트워크, 파인밸류자산운용 등	Pre-IPO
인트론바이오	400	퀴드자산운용, 키움증권	코스닥

기업명	투자액(억원)	투자기관	투자단계
애니메디솔루션	55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BNH인베스트먼트, JX파트너스	시리즈 B
엠모니터	50	KTB네트웍, BNH인베스트먼트	시리즈 B
랜드바이오사이언스	122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네오플렉스, 우신벤처투자, 라구나인베스트먼트, 엠포드에쿼티파트너스, C&R리서치	시리즈 A
단디바이오사이언스	36	홀앤-히스토리 2019-바이오투자조합, 동유인베스트먼트, 우심산업개발, 해피머니아이엔씨	
파맵신	1,000	키움증권, 키움아이온코스닥스케일업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투자자산운용, 케이비-브레인 코스닥 스케일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 KB-KDBC Pre-IPO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씨스퀘어자산운용, 안다자산운용, 엔에이치-아주 코스닥 스케일업펀드, 아샘자산운용, 오라이언자산운용, 포커스자산운용, 2018 IMM 벤처펀드	코스닥
하이센스바이오	70	한국투자파트너스, 데일리파트너스, 타임플리오자산운용	시리즈 B
큐리오시스	50	뉴플라이트 등	시리즈 B
프로테움텍	50	포트원케이프제일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포스코기술투자	코넥스
에이치엘비생명과학	600	글로벌바이오테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씨스퀘어자산운용, 이엔헬스케어투자조합6호, 키움투자자산운용, 아트만자산운용 등	코스닥

기업명	투자액(억원)	투자기관	투자단계
SCM생명과학	40	한독	SI 투자
스텀랩	50	데일리파트너스, IBK캐피탈, DB자산운용	코넥스
엔세이지	30	에이티아이	시리즈 A
지뉴브 (샤인바이오)	115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우신벤처투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IBK(중소기업은행), 마젤란기술투자	시리즈 B
제늘시	100	뉴플라이트 · 알펜루트자산운용 등	시리즈 A
뉴라클사이언스	350	세븐트리에쿼티파트너스,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BNK자산운용, IBK기업은행, 브라만인베스트먼트, 유경자산운용, 이음프라이빗에쿼티	시리즈 C
진캠	180	국내 자산운용사	시리즈 A
제넨바이오	400	혜안바이오 유한회사	코스닥
한스바이오메드	200	나무그로스캐피탈사모투자	코스닥
신테카바이오	197	유한양행, 알토스벤처스, KB증권, 새한창투,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시리즈 C

[별첨]

2018년 상반기 (1-6월) vs. 2019년 상반기 (1-6월) 주요 투자사 바이오 투자 금액/건 수

참고: DIVA (한국벤처투자협회 공시사이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2018 상반기 바이오 기업 투자 건수 및 액수:

의료기기 관련기업 1건 53억 8천 / 의약품 관련기업 3건 21억 9천

2019 상반기 바이오 기업 투자 건수 및 액수:

의약품 관련기업 2건 89억 9천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2018 상반기 바이오 기업 투자 건수 및 액수:

의료기기 관련기업 1건 10억 / 의약품 관련 기업 5건 182억

2019 상반기 바이오 기업 투자 건수 및 액수:

의료기기 관련기업 1건 30억 / 의약품 관련 기업 5건 100억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2018 상반기 바이오 기업 투자 건수 및 액수:

의약품 관련기업 2건 45억 6천

2019 상반기 바이오 기업 투자 건수 및 액수:

의약품 관련기업 1 건 20억

데일리파트너스

2018 상반기 바이오 기업 투자 건수 및 액수:

의료기기 관련기업 1건 20억 / 의약품관련 기업 5건 24억 1천

2019 상반기 바이오 기업 투자 건수 및 액수:

의료기기 관련기업 1건 30억 / 의약품관련 기업 8건 176억9천

한국투자파트너스

2018 상반기 바이오 기업 투자 건수 및 액수:

의료기기관련기업 1건 10억 / 의약품관련 기업 4건 71억

2019 상반기 바이오 기업 투자 건수 및 액수:

의료기기관련기업 2건 24억9천 / 의약품관련 기업 3건 70억

저자소개

한국바이오협회 홍보팀 팀장
황주리 전화 : 031-628-0035
e-mail : jurie777@koreabio.org

BIO ECONOMY BRIEF

발행 | 2019년 11월
발행인 | 서정선
발행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
www.koreabio.or.kr